

# “손익보다 신뢰, 線 넘는 도전하자”

## 저축은행업계, 규제완화 위해 TF 구성

###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영전략회의 신종 코로나 우려... 비대면 진행 두려움없는 조직·선넘는 도전 제시



지난 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2020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진옥동 은행장이 '고객중심' 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일류신한의 출발점은 손익이 아닌 고객신뢰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진옥동 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부사장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려로 사내방송과 SNS 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2020년 전략방향인 '고객중심! 신한다움으로 함께 만드는 가치'를 주제로 ▲2019년 성과 및 2020년 중점 전략방향 ▲소비자보호정책과 고객중심 문화 실천 ▲2020년 앞서가는 영업준비 순으로 진행됐다.

진 행장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고객중심'을 재차 언급하며 "은행(業)은 고객의 니즈에서 출발해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성립된다"고 정의하고 "손익이 기준이 되는 과거

의 리딩뱅크가 아닌 고객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받는 일류 신한다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에는 고객이 있어야 하며, 영업 전략 추진에 앞서 소비자보호·준법·내부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같이성장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진행장은 고객중심의 조건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조직'을 언급했다.

그는 "40대 초반의 지점장을 임명해

직원과의 나이 차이를 10살 내외로 설정한 '고객 중심 영업점'과 같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고민하고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은행을 만들어 보자"며 "직원들이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고객중심의 방법으로는 '선(線)을 넘는 도전'을 제시했다. ▲'과거의 선'을 넘어 익숙함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갈망하며 도전해 나가자 ▲'세대의 선'을 넘어 직원 간 공감과 포용으로 진정한 원팀(One Team)되자 ▲'경쟁의 선'을 넘어 내부에 갇혀있던 시선을 고객과 외부의 경쟁자로 돌리자 등을 말했다. 이와 함께 진 행장은 벼슬레이를 예로 들었다. 진 행장은 "4명의 선수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최상의 기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앞에서 방향을 잡는 파일럿, 여기 계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변화가 고객과의 약속이다. 하나가 된 신한으로 고객을 향해 나아가는 2020년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규제완화 안건, 금융당국 제출 구상 예보로울 인하, 銀별 규제차등화 등

저축은행업계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저축은행 업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업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저축은행의 부사장급 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규제 완화 안건을 모아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업계는 예보료(예금보험료)을 인하, 대형·중소형 등 저축은행별 규제 차등화, 지역 대출 비중 완화, 저축은행 업권의 인수·합병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예보료율의 경우 저축은행 업권이



박석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개선된 기준이 예보료 부담을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법으로는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갖을 수도 없어 인수·합병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권역별로 나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다.

무엇보다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상관없이 업계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높아 안전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지방금융, 비은행·비이자 ↑ 실적 질 호전

## IBK기업銀 2조 규모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 BNK금융 수익 중 銀비중 81.7% “그룹 차원에서 생존방법 모색해야” 이중레버리지비율 꾸준히 상승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구분	2019년 3분기말	2018년말	2017년말	2016년말
BNK금융지주	119.27	122.39	122.22	122.53
우리금융지주	100.18	-	-	-
신한금융지주회사	128.58	119.05	127.44	127.13
한국투자금융지주	128.08	128.74	129.09	129.69
KB금융지주	125.59	126.17	125.8	118
하나금융지주	123.05	125.61	125.2	126.74
DGB금융지주	125.5	119.4	109.54	108.76
메리츠금융지주	123.49	128.19	127.75	139.44
JB금융지주	116.29	119.34	129.42	126.96
농협금융지주	116.64	120.62	121.18	119.92
평균	120.67	123.28	124.18	124.3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도 지난해 지방 금융지주사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은행·비이자 부문으로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를 비은행·비이자 수익에 따라 지방금융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다각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생존 위해선 은행 의존 버려야...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BNK금융의 당기순이익은 5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1억원(12%)증가했다.

DG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3274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61억원(14.6%) 감소했다. 다만 지난 2018년 하이투자증권 인수와 관련한 영가매수 차익 약 1600억원을 반영하면 경상적인 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지주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비이자 이익'이다. BNK금융의 비이자 수익은 1250억원으로 전체 순이익의 18.3%다. DGB금융의 비은행비이자수익은 1389억원으로 전체 순이익의 31.1%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수익 중 대부분은 증권사가 뒷받침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해 2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기여도도 2.27%에서 3.7%로 상승해 지주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8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459억원)보다 77.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이자 수익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은행 부문에 대한 수익이 늘고 있지만 은행 부문에 대한 자산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 BNK금융의 전체 수익 중 은행비중은 81.7%, DGB대우은행의 비중은 68.9%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은행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비은행을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다각화 위해 '리스크 관리'부터 BNK·DGB금융은 비은행 비이자 부문을 강화하며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BNK금융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0.20%포인트와 0.01%포인트 하락한 12.95%와 9.54%를 기록했다. DGB금융은 BIS총자본비율이 12.34%로 전년 대비 0.48%포인트 떨어졌고, 보통

주 자본비율도 9.56%로 전년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재무안정성 측정의 계량지표인 이중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지주의 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즉, 이 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금융지주가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상승하면 그 반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이중레버리지비율은 BNK금융 119.27%, DGB금융이 125.50%이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자회사 출자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해당 비율이 120~130%를 넘어가면 부채로 조달해 자회사에 출자가 이뤄진 것으로 재무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중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시점에서 금융지주가 비은행 비이자부문을 확대하기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무리한 경쟁이 향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는 등 리스크 관리능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최저 1.5% 수준 특례금리 대출 지원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진행되는 신규 설비투자에 최저 1.5% 수준의 특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금리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시점의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 우리銀 '우리 햇살론17' 오늘부터 신청

우리은행은 정책 서민대출상품인 '우리 햇살론17'을 10일부터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우리원(WON)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햇살론17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및 시중은행이 함께 개발한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우리 햇살론17로 판매하고 있다.

우리 햇살론17의 대출한도는 최대 700만원,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 가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1년간 연체없이 원리금을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다음 1년간 인화된 대출

대출 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용도가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시설투자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소재·부품·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중 올해 내 발생하는 신·증설 시설투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만큼 ▲기존시설의 유지·보수 ▲이미 지어진 시설의 구매 ▲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하는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업은행은 실제 투자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계획서, 투자시행여부 사후 확인 등을 통해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대출 전 단계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 3년의 경우 매년 2.5%포인트씩 최대 2회까지 감면되며, 5년의 경우 연 1.0%포인트씩 최대 4회까지 감면된다.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된다.

우리 햇살론17을 우리원뱅킹으로 신청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된 직장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근 3개월간의 직장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연 소득을 산출해 대출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산출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